

# 전남교육청,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대상, 총 4회 권역별 연수 진행

### 업무담당자 연수 사례 공유·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7월 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주제로 총 4회의 권역별 연수를 진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심

고되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과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상호이해와 화해,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된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관계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피·가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 장성공공도서관, 갤러리 트랙 '꿈꾸는 아이들'



장성공공도서관은 갤러리 트랙에서 오는 31일까지 정순남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소재로 하여 '나는 나무', '내 친구', '추억' 등 테라코타 작품 23점과 '동행', '친구들' 등 그림 작품 8점을 전시한다.

작품의 소재는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자연이다. 작가는 아이들의 맑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고 말한다.

정순남 작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목포문화예술회관, 이미지아트센터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하였다. 현재는 전남초등미술학회, 담양미술협회 등 회원으로 활동하며 금성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영수 관장은 "시작되는 무더위로 지친 시기에 작가가 표현한 일상 속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테라코타 작품이 주는 친근함과 따뜻한 힘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갤러리 트랙은 연 12회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 순천대-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나서



국립 순천대학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4차산업 분야 인재 육성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순천

###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대학교 고영진 총장, 정용화 기획처장, 심춘보 정보전산원장, 컴퓨터공학과 고진광 교수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최현택 협회장, 백종선 사업총괄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전환 핵심 기술 관련 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교육 확산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신기술 교육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및 시설·장비 활용 △신기술 교육 혁신 및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한국의 IT산업 구성원으로서 동행하며 미래산업 전문가 양성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팜, 헬스케어 등 세부 산업 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하여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각종 IT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나주교육청,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강화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국립나주체육관 대강당에서 나주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교(원)장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학생(통합)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나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 내실화와 즉각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진로·직업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장애학생의 인권강화, 행동중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허성균 이사(前곡성



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A초등학교 교장은 연수를 통해 "모두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를 위한 노력이 곧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듯,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이 곧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완도 소안초, '2022 소안 교육가족 그림책 음악회' 성료

### 그림책과 클래식 선율의 아름다운 동행

완도소안초등학교는 지난 5일 달목관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림책과 클래식 선율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2022 소안 교육가족 그림책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그림책 음악회는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 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예술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림책 음악회'는 원화로 제작된 영상을 보며 연주하는 전문성우의 그림책 낭독과 클래식 음악 감상, 모래와 빛이 어우러진 샌드아트 공연, 다양한 음식의 기타보컬, 성악과 같은 예술적 장치가 결합된 이색콘서트이다.

음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그림책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성우가 직접 책을 생동감 있게 읽어준 것이 재미있었다. 신기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고, 함께 자리한 한 교사는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뜻 깊은 예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예술과 관련된 Job 토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 학부모는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섬 지역에 살다보니 공연을 한 번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주어 너무 행복하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은희 교장은 "이번 음악회는 독서와 음악이 융합된 창의적인 이색 콘서트로서 이 공연



을 통해 그 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었던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이 위로받고 힐링될 뿐만 아니라 잠재된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